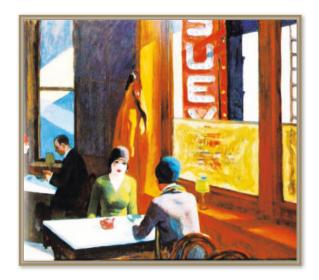
■ 그림 여행



찹 수이 (Chop Suey c. 1929)

에드워드 하퍼 (Edward Hopper 1882-1967) (캔버스에 유채 81.3 cm x 96.5 cm 바니 엡스워드 개인 소장품)

이 그림의 제목이 왜 '찹 수이' 인지 항상 궁금했다. '찹 수이'는 한국 짜장면과 같은 개념의 음식이다. 한 국에서는 짜장면이 중국 음식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는 짜장면이란 음식이 없다. 한국에서만 먹는 개량 중국 음식이라고 할까. '찹 수이'도 마찬 가지이다. 중국에 '찹 수이'라는 음식은 없다고 한다. 야채와 고기, 해산물 등을 섞어 볶아 놓은 정체불명 의 음식인데, 미국 사람들은 중국 음식점에 가면 자 주이것을 시켜 먹는다. 미국에서만 먹는 또 하나의 개 량 중국 음식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왜 제목이 '찹수이'

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먼저 빛과 그림자의 뚜렷한 교차와 대비를 볼 수 있다. 실내는 그리 밝지 않으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강렬하다. 너무 환해서 밖이 낮인가 보면 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강한 조명을 발하고 있는 밤일 수도 있다.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대비가 교차하는 실내의 분위기도 조용한 가운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중성을 띤다. 정답게 앉아 담소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모두들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대화인지 침묵인지 알 길이없다. 만약 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서글픈 광경인가.

하퍼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이 1929년이다. 미국 월가의 증시 대폭락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들어 선시점이다. 어쩌면 하퍼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꼼짝없이 갇혀버린 듯한 당시 미국인들의 심정을 그린 것이 아니었을까? 화려한 조명이 들어오는 실내에 조용히 침묵하며 앉은 사람들의 정지된 모습. 그렇게 해석한다면 섬뜩한 그림이다. 한가한 오후의 한때, 실내에서 조용히 담소하는 사람들을 그린 장면으로 생각하고 이 그림을 좋아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그리 한가하거나 정겨운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찹 수이' 라는 제목은 여전히 재미있다.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 식당 네온사인이 '찹 수이'로 읽힌다. 식당 이름에서 제목을 따 온 것일까? 그러면 이 그림은 그냥 단순한 실내 풍경인가?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가능해서 '찹 수이'라는 제목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다.

《김동백》





